

# PROPORTION by SHIN MYOUNG DUK

**49th Exhibition** Feb 24 - Mar 24, 2021

**Place** Space B-E Gallery 4F

**Creator** Myoungduk Shin

**Program** Pop-up Store\_My Combination (Space B-E Gallery 3F)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나무에 손을 댄 건 약간이고 거의 대부분은 세월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신명덕 작가의 작품에는 지극히 사적인 따뜻한 비율이 느껴진다.

아마도 자연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그의 태도로부터 나무와 호흡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복제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존재들은 이런 호흡으로 탄생 되었고

자연으로부터 온 감각이 그대로 담겼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수학적일 것 같은 비율은 여기에 없다.

그 무엇도 기억으로 복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이 만들어 낸 나무의 결과 옹이를 따라...

또 그날그날 작가의 감정에 따라 탄생된 지극히 사적인 비율(Proportion).

이번 전시는 신명덕 작가의 작품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지나 온 긴 여정을 담아낸다.

**Director** Jooyeon Choi

**Space B-E**

[www.spacebe.co.kr](http://www.spacebe.co.kr)

**Instagram**

스페이스비이 @be\_archived / 윤현핸즈 @younhyun\_hands\_store / 윤현상재 @younhyun\_official

# MY COMBINATION

---

## Pop-up Store

1st Mar 01 - 10  
Myoungduk Shin x Joohyun Bae

2nd Mar 15 - 24  
Myoungduk Shin x Hyejeong Kim

## Place

Space B-E Gallery 3F

## Creators

Myoungduk Shin  
Hyejeong Kim  
Joohyun Bae

두 가지의 물성 Wood & Ceramic, 가장 흔하게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재료이자 잘 어울리는 합이 아닐까 싶다. 신명덕 작가는 나무의 쓰임보다 주어진 그 생김새에 따라 크기에 따라 작품을 만들어 왔다. 마치 나무와 대화하듯... 그러다 보니, 조각 하나 버리는 것 없이 아주 작은 피스에서 큰 매스에 이르기까지 크기와 모양이 다양도 하다. 이번 Artist Pop-up Store 'My Combination'은 4층 개인전 'Proportion by Shin Myoung Duk'과는 별개로 김혜정, 배주현 두 작가의 세라믹 작업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된다.

작품은 작가의 의도와 목적을 담아 탄생되지만, 또 그 쓰임은 사용자의 몫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신명덕 작가의 우드 작업에, 세라믹으로 함께 콤비네이션을 만들어 보고자 기획된 이번 팝업은 관람자들에게 '사물을 조합하는 방식의 경험'을 선사하려고 한다. 관람자 혹은 구매자의 취향 따라 다양한 감각적 조합이 탄생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작품을 사는 행위가 관람자의 시선에서 또 하나의 창조적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Director** Jooyeon Choi

---

## HYEJEONG KIM

www.potspots.com  
Instagram @hyejeong\_kim\_ceramics

신명덕 작가의 나무 작업은 어찌 보면 추상적이고 기호적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일 수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놓이고, 무슨 느낌인지 묻는다. 그것은 나무를 깎고 깎는 기법을 통해 사물의 가치를 전환하는 작업이고 의문하는 행위이다. 나무들 모습에서 들려 오는 물음에 이끌려 나도 흙으로 되묻고 다가가고 하듯이 도자기를 빚었다. 우리가 그간 주고받은 물음들이 보는 이들의 새로운 물음과 느낌으로 이어져 생활 속에 기쁨이나 위안, 재미를 더하는 방식으로 녹아들어 갈 것을 상상하니 즐겁다.

---

## JOOHYUN BAE

Instagram @joo\_bh

때로는 타인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직관적으로 끌리는 사물이 있다.

사물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나, 시장원리에 의해 좌우되는 값어치가 아닌, 현재의 관심사 속 레이어망에 걸린 소소한 사물들도 있다.

응시하다 보면, 그것들이 생각을 자극하고 이완시킨다.

오로지 느낌이다.

마음이 동하면 된다.

그뿐이다.

---